

KISTEP 통계 브리프 2007-5호

특허 활동의 국제협력 - EPO 특허 자료를 중심으로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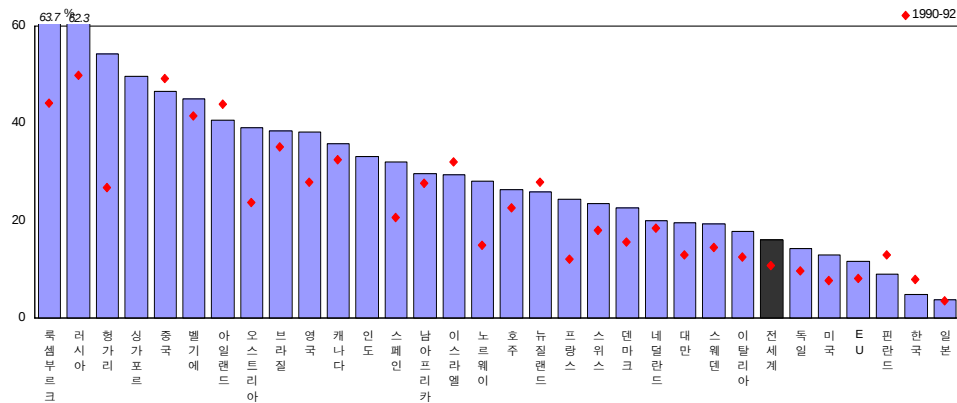
□ 세계 특허의 국제협력

- EPO 등록특허 중 자국 특허 중 외국인 소유 비율은 10.8% (1990-92)에서 16.0% (2000-02)으로 증가 추세임
 - 룩셈부르크, 러시아, 헝가리, 싱가포르등이 외국인 소유비율이 높으며 그 증가도 빠른 편임
- 외국에서 발명된 내국인 소유 특허 비율은 0.8% (1990-92)에서 16.0% (2000-02)으로 증가 추세임
 - 룩셈부르크, 아일랜드, 스위스등 국제 교역이 활발한 유럽의 소국등이 비율이 높으며 스웨덴, 핀란드, 중국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짐
- 외국인과 공동으로 발명한 특허수 비중은 3.8% (90-92)에 7.0% (00-02)으로 큰폭으로 상승
 - 룩셈부르크, 러시아, 싱가포르등이 그 비율이 높으며 러시아, 헝가리, 영국등은 큰폭으로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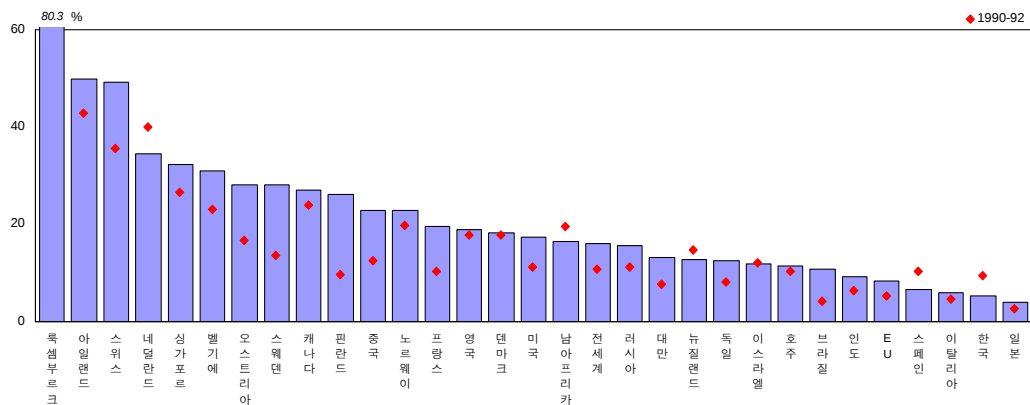
□ 우리나라 특허의 국제협력 추이

- 외국인 소유 특허수는 40건(90-92)에서 245건(00-02)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그 비율은 오히려 감소(7.8%→4.8%)함. 비율도 비교대상국의 최하위권임
- 외국에서 발명된 내국인 소유 특허수는 49건에서 273건으로 증가하였지만 비율은 감소(9.5%→5.4%)하여 일본과 함께 최하위권임
- 외국인과 공동 발명 특허수는 급격히 증가(37건→270건)하였지만 비율은 마찬가지로 감소(7.2%→5.3%)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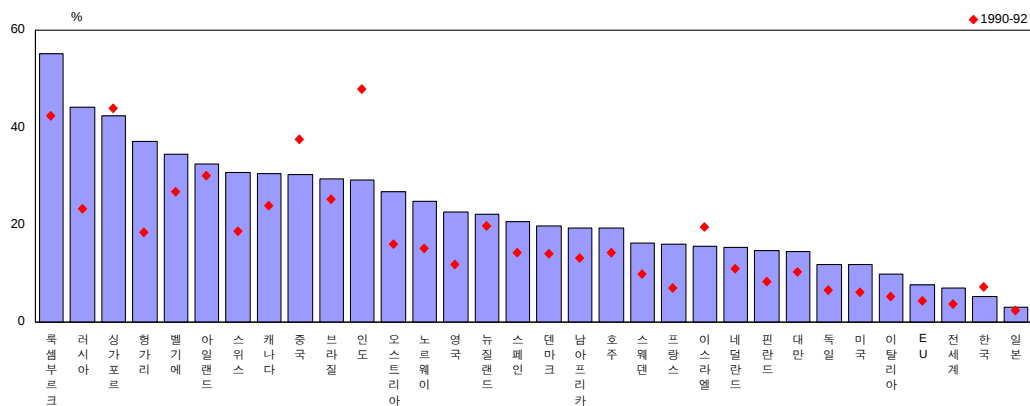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자국 특허의 외국인 소유 비율 (2000-2002년 EPO 특허)



<그림 2> 외국에서 발명된 내국인 소유 특허 비율 (2000-2002년 EPO 특허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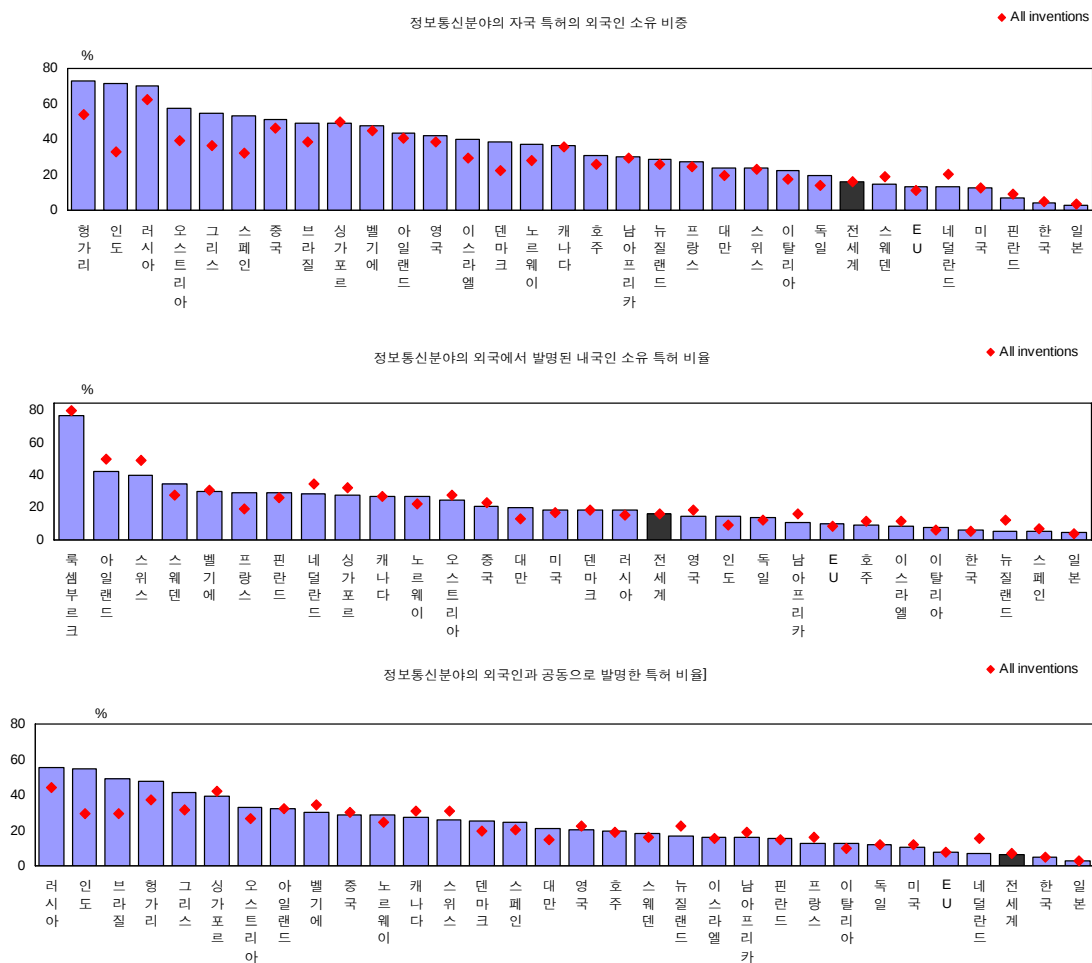
<그림 3> 외국인과 공동으로 발명한 특허 비율 (2000-2002년 EPO 특허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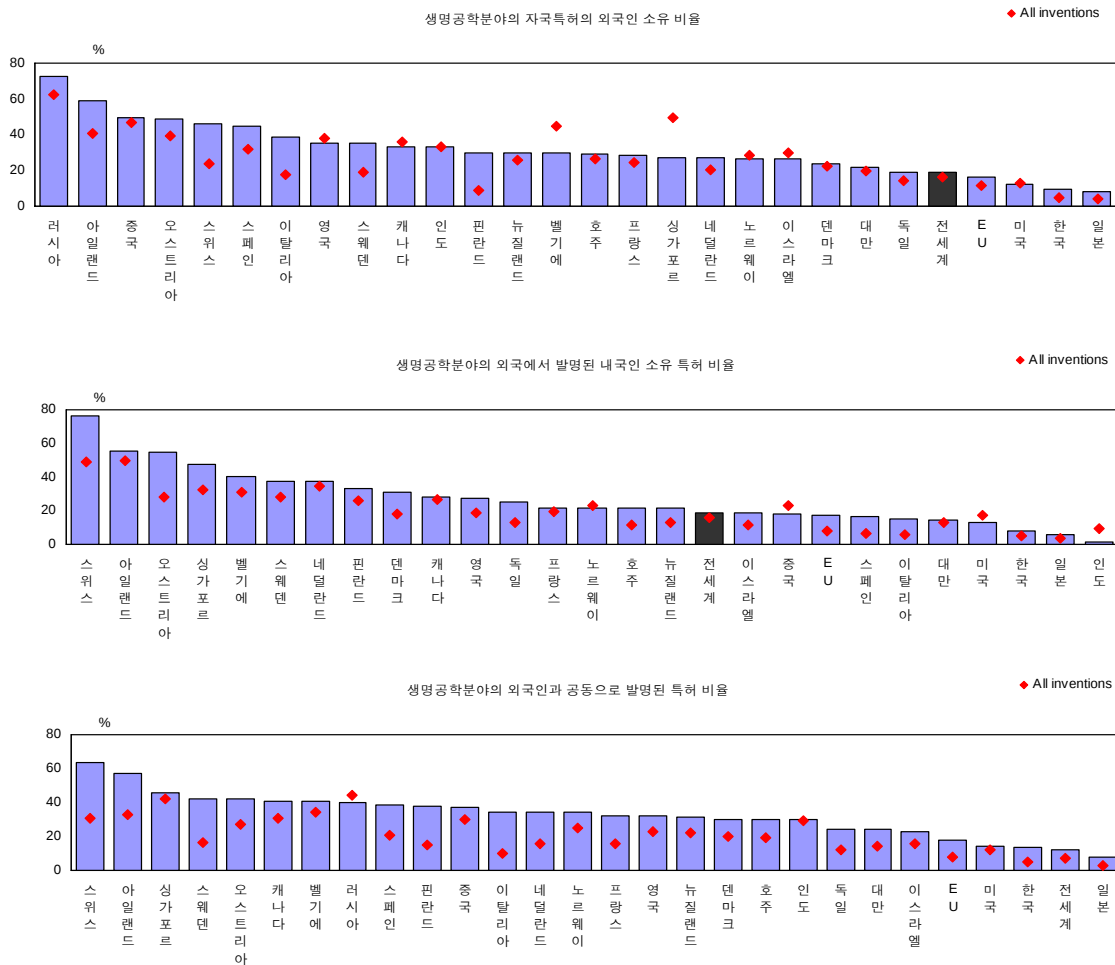
□ 우리나라의 정보통신, 생명공학 분야 특허의 국제협력

- 정보통신분야 특허의 국제협력은 전체 특허의 국제 협력 부문과 비슷한 수준임
 - 외국인 소유 비율(정보통신 4.3%, 전체 4.8%), 외국인 공동 특허 비율 (정보통신 4.7%, 전체 5.3%)는 전체에 비해 떨어지지만, 외국에서 발명된 내국인 소유 비율(정보통신 6.6%, 전체 5.4%)은 조금 높음
- 생명공학분야 특허의 국제협력은 전체 특허의 국제 협력 부문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낮은 수준임
 - 외국인 소유 비율(생명공학 9.3%, 전체 4.8%), 외국인 공동 특허 비율 (생명공학 7.9%, 전체 5.3%), 외국에서 발명된 내국인 소유 비율(생명공학 13.7%, 전체 5.4%)은 모두 높은 수준임

<그림 4> 정보통신 분야 특허 국제협력 동향 (2000-2002)



<그림 5> 생명공학 분야 특허 국제협력 동향 (2000-2002)



□ 시사점

- 전세계적으로 특허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정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소함
 - 특히 미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핵심기술인 IT, BT 분야의 경우도 국제협력이 미미한 수준임
- 이는 언어장벽과 기술 수준이 높은 외국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국내 유치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
- 기술수준이 높은 외국의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고 기술이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

* 자료원 : OECD,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2006

* 자료관련 문의 : 혁신지표팀 (02-589-2829, 2949, 2892)